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오늘의 우상** 성경: **누가복음 16장 9-16절**

Tag: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1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14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16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눅16:9-16)

이 말씀은 16절 말씀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풀어 나가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가지를 비교하거나, 대비(대조)하거나, 동일시하거나, 둘 중 하나를 우선시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

우선 16절에는 두가지를 대비하시는데, 율법/선지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비하신다. 간단하게는 구약과 신약.

신약을 더 우선시 하셨다. 시간적으로도 구약은 요한때까지가 유효기간이었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셨다. 이제 구약은 신약을 위한 구약으로서 사용해야 한다. (더 이상 구약적 가치나 윤리나 제도나 체제가 실효성이 있지 않다.)

복음으로(성령으로) 새로운 가치와 질서와 체제가 확립되었다.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마다(어떤 사람은 영겁 결여가 아니다. 우연히가 아니다. 덩달아가 아니다) 침입해야 한다. (침입의 수고)

침입이라는 단어는 마치 농구 선수가 상대방의 방어막을 뚫고 공을 골대로 집어넣듯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몸싸움을 하면서 득점하는 행동을 상상하면 된다.

그래서 대중 교회 다니면 천국 가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라. 다만 큰 부담을 하고, 큰일을 해야 천국 가는 것 아니다.

다만 어렵지는 않을지라도, 영성하지 말고 치밀하고, 작더라도 진솔하고, 적더라도 충성스러워야 한다.

14-15절에서 실패의 예를 먼저 살펴 보자. (바리새인 vs 불의한 청지기)

역시 우리 바리새인이 등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 주었다.

그는 돈을 좋아하는 자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안그런척 하면서 스스로를 올바른 사람으로 잘 포장하고 있었다.

바리새인 -돈을 좋아하지만, 속물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올바른척 하면서 높임까지 받으려는 자. 대중을 속이면서 그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는 관중(관심받고 싶어하는 종자, 그런데 교묘하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자.(교관중)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고 사람들의 이목에 마음을 쏟는 자. 인기가 우상인 셈.)

불의한 청지기-돈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혜롭고 충

성스러운 자로, 사람들에게는 불의한 자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돈의 정체를 잘 알고 있는 자. (돈에 대한 감성이 있는 자.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을 위협스럽게 여긴다.)

돈의 정체란?

1. 돈은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치의 총화다.(과부의 두 렷돈)

2. 돈은 신용을 만들어내는데 유용하기 때문에(신용 야바위꾼), 돈놀이를 통해서 온갖 신용조화를 만들어낸다. 청지기는 돈을 마치 요리사 칼 다루듯 한다. 그는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세상을 연주하는 자이다.(돈으로 세상을 돌게하는 자) 그에게 있어서는 사실 돈의 액면가치보다 자신의 금융 재주가 더 높은 가치다. (그는 전주에게 약속한 금액을 돌려주었지만, 그 사이에 그 돈의 위력으로 미래에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유익을 마련해 두었다. 전주로서는 계약 위반은 아니므로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전주에게 그런 지혜가 있었다면 그는 청지기에게 돈을 맡기지 않고 스스로가 돈놀이를 했을 것이다.)

만약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섬기는 자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돈을 섬기는 자는 아니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비교했을 때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 점이 세속적 가치관과 매우 다르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비교우위를 차지한다.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가요? 불의한 청지기 (마치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이치와 같음.)

10-12절까지는 한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다. (충성난코스 3종 세트 등장)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기.(10)

불의한 재물일지라도 충성하기.(11) >바리새인은 우상숭배. -불의한

재물에 충성했을지언정, 우상숭배보다는 낫다.

남의 것일지라도 충성하기.(12)

-작을지라도 충성, 심지어 불의할 지라도 충성, 남의 것일지라도 충성. =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몸싸움을 하면서 애쓰는 모습과 겹치는 모습.

-충성이란 자신의 겹을 보검으로 만드는 대장간이다. 특히 충성난코스 3종세트는 충성보검을 성골충성검으로 만들어준다.

-보통 사람들은 3D업의 진가를 잘 모른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은 전도에 필요한 말씀이다.

-여러분 주위에 불의한 재물을 쌓아두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시라.

-어르신 나랑 같이 천국 갑시다. 내가 잘 인도해 주겠소. (성골충성꾼이라면 이렇게 전도하라.)

-하나님은 당신같이 충성스러운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미움 받는 것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는 것
충성하는 것 =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강력하게 힘껏,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침입하는 것

충성>불의의 재물>관중 바리새인

가능성이 있는 죄인은 곧 충성스러운 죄인

가능성이 없는 죄인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자

4 겹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 22:4)

아멘.

대조적 프레임

전통적 프레임을 흔들어 놓으시는 예수님.

불의의 재물 vs 영생으로 인도하는 친구

율법과 선지자 vs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재물 vs 하나님

불의의 재물로 충성하는 법; 영생을 위해 친구를 사귀라

남의 것 vs 내 것

<찬양예배>

제목 : 고린도전서 성경공부

성경: 고린도전서 2장

Tag: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apitan&logNo=11009387450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